

“야당 말살, 협치는 끝났다”...민주, 당사 압수수색에 격앙

검찰 당사 진입 2시간 압수수색 “출근 직원 가장해 밀고 들어와” 용산 대통령실 앞 규탄 기자회견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거부 방침

검찰이 24일 서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있는 김홍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정진상 대표를 향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제1야당 중앙당사의 압수수색은 폭거라며 강력 반발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거부와 함께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 진입한 뒤,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당사 내부 민주연구원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9일 1차 압수수색이 민주당 측의 저지로 불발된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변호인 임회 아래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중앙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국회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도발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다시 우리 중앙당사에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출근하는 직원을 가장해 당사에 밀고 들어왔다”며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데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며 “분명히 말하는 데, 정보보다는 민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주 검찰의 압수수색은 국정감사 방해 행위라고 규탄했음에도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또 (당사를) 침탈했다”며 “이는 내 일하는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극한적 파행을 유발하는 반성 없는 도발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협치는 없고 협박만 있다. 협치는 없고 파렴치한 난무한다”고 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민주당 의원 전원을 감방에 처넣어야 성에 풀리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쇼라며 ‘검찰이 민주당사를 들어오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끼어서 기습적으로 민주연구원 부원장실까지 침입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해 오전 국감 참석을 보류하고 대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제는 협치는 끝났다 생각한다”며 “정치적 제거용 야당 탄압에 골몰하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민과 함께 싸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단 25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출석 거부나 항의성 침묵시위 등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거부 방식은) 내일 오전까지 봐야 할 것 같다”며 “지금은 피케팅, 규탄 시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 대표가 전격 제안한 ‘대장동 특검’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김건희 특검’까지 아우르는 ‘쌍특검’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 의견의 두 배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의 뒷돈이 김 부원장뿐만 아니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도 전해졌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하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최근 출국금지됐다. 정 실장은 이번 입장문을 내고 “불법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과 당직자들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무실 앞에서 열린 ‘검찰독재 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 규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남았다”

“저축은행 빼도 좋다”...특검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검찰이 여의도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한 것에 대해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 납득하기 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남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이 제안한 ‘대장동 특검’을 거론하면서 “정쟁적 요소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여권의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 연관이 없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연관 짓지 말기를 부탁드린다”며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바자기’가 부담스러우면 (특검 대상에서) 빼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드디어 거부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 같다”며 “작년에도 저는 분명 특검하자고 했는데 국민의 의회에서 ‘이것, 저것 빼자’고 조건을 붙여 실질적으로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와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당사로 향했다.

이 대표는 당사로 들어가 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도중에 야당의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야, 환노위 국감서 SPC 사망사고 질타...“참혹하고 매정한 기업”

대표 증인 출석 “불행한 일 발생 죄송”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평택의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SPL의 강동석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안전관리 부실과 사고 다음 날에도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근로자들이 빵 만드는 작업을 이어간 점 등을 한 목소리로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안 하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라면서 “동료가 사

망했는데 흰 천을 덮고 작업을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강 대표를 향해 “회사가 최근 산업재해 보험료 관련 납부 혜택을 받지 않았다. 보험료까지 감액받은 사업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감액받았으면 안 됐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현장 노동자들이 사망자를 직접 수습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일했다고 한다. 그런 사고방식이니 사고가 나는 게 아니냐”라면서 “참혹했고 매정한 기업이다.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국감 끝나고 SPC 전체

그룹에 대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영진 의원은 “SPC 그룹 허영인 회장이 나오는 게 합당하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SPL은 생명을 우습게 아는 몹시 나쁜 기업의 롤모델이며 이는 SPC그룹의 문제”라며 “이대로 두면 달라지지 않는다. SPC 그룹이 반인권·반노동·반생명 경영을 바꾸지 않으면 빵을 팔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사과를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발언에 “이렇게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돼 대표로서 유가족분들은 물론 임직원, 고객,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대처에 너무나 미흡함이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하락 32.9%

리얼미터 조사...긍정평가 64.4%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2%대를, 부정 평가는 64%대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렌드의 의뢰로 지난 17~21일 전국 성인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2.9% (매우 잘함 19.3%, 잘하는 편 13.5%), 부정 평가는 64.4% (매우 잘못함 56.7%, 잘못하는 편

7.7%)로 각각 집계됐다.

전주 조사(11~14일) 대비 긍정 평가는 0.2%포인트(p) 하락(33.1%→32.9%)했고, 부정 평가는 0.2%포인트 상승(64.2%→64.4%)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해외 순방 과정에서의 ‘비속어 논란’ 등으로 9월 4주차에 31.2%로 하락한 이후, 2주 연속 소폭 반등했다가 3주 만에 소폭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6.4%p ↑), 부산·울산·경남(3.7%p ↑), 50대(4.0%p ↑), 무당층

(7.4%p ↑), 보수층(3.5%p ↑) 등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8.5%p ↑), 서울(3.1%p ↑), 대구·경북(3.1%p ↑), 20대(5.0%p ↑), 40대(2.1%p ↑), 중도층(2.1%p ↑), 농림어업(15.4%p ↑) 등에서 늘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2.0%포인트 오른 48.4%, 국민의힘은 1.0%포인트 내린 35.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봄에 떠나는 그림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